

■ S-319 ■

스테로이드 사용 후 호전된 속립성 결핵에 의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2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김태욱, 지수영, 권용수, 임성철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등이 있다. 결핵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되어 있으나 결핵에 의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은 다른 원인에 비해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속립성 결핵에 의해 발생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의 치료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조기에 적절한 항결핵제와 스테로이드 사용이 사망률을 감소 시켰다는 보고도 있다. **증례1:** 16세 여자환자가 1일전부터 심해지는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1달 전에 속립성 결핵을 진단 받고 항결핵제(INH, RFP, PZA, EMB)를 복용 중이었다. 흉부 X선과 CT상 좌기흉과 함께 양측 폐 전반에 간유리혼탁(GGO; ground-glass opacification) 소견 보였다 항결핵제 내성 검사상 내성균 보이지 않아 항결핵제 유지하였으나 호흡곤란 점차 심해져 인공호흡기 치료 시행하였다. 이후에도 증상 호전 보이지 않아 저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함께 시행하였고 이후 점차 증상 호전 보였다. **증례2:** 22세 남자환자가 2일 전부터 심해지는 호흡곤란과 발열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였다. 내원 20일 전부터 속립성 결핵 진단 받고 항결핵제(INH, RFP, PZA, EMB) 복용 중이었다. 흉부 X선상 양측성 미만성 결절형 침윤소견 보이고 있었으며 산소마스크 15 L로 산소 분압(PO₂) 52.4 mmHg 보여 인공호흡기 치료 시행하였다. 인공호흡기 치료와 함께 스테로이드 치료 병행하였고 이후 증상 호전 보였다.

■ S-320 ■

침술로 의해 발생된 폐 내 이물 1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 흉부외과¹

*정영규, 정혜경, 이호성, 최재성, 나주옥, 서기현, 김용훈, 이승진¹

폐내 이물은 발생 빈도가 매우 드물고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행되면 이물 주변부의 염증과 동반된 섬유화 및 폐농양 형성 등 합병증이 발생하고 횡격막 운동이나 심장의 수축 운동으로 인한 이물의 이동으로 주요 장기에 열상, 천공 등 치명적 합병증을 초래 할 수 있다. 32세 여자는 산전 검사 중 시행한 흉부 X-선에서 발견된 폐 내 이물로 내원하였다. 3년 전 첫 아이 출산 후 지속적인 요통과 왼쪽 어깨의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3차례 침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흉부 X-선과 흉부 CT 에서 좌폐의 설상엽에서 선형 이물질이 관찰되어 흉강경하에 이물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제거된 폐 내 이물은 좌폐의 설상엽과 심장막 지방에 유착된 4 cm 가량의 금속 침이었고 과거력으로 볼 때 침술로 인한 침으로 사료되었다. 이물 제거 후 질환의 악화 소견 없이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저자들은 산전 검사를 위해 시행한 흉부 X-선에서 우연히 발견된 폐 내 이물을 가진 환자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